

2020.11.12.(목) 15:00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

2020 충남사회적경제 포럼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방안

2차 충남사회적경제 포럼 계획

■ 포럼 개요

- 일시 : 11.12.(목) / 15:00~18:00
- 장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층(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63 중소기업커뮤니티센터 5층)
- 주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방안

■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14:30-15: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5:00-16:10	1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1. 사회적경제 인재상과 교육 방안 - 신재걸 교육위원장(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과제 - 장효안 팀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10-16:30	휴식
16:30-18:00	2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좌장: 이승석 상임대표(충남사회경제연대) 1. 토론1. 지원조직 관점에서 인재양성 방안 - 최인묵 실장(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 토론2. 농촌지역 관점에서 인재양성 방안 - 정민철 상임이사(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3. 청중 토론

발제문

1. 사회적경제 인재상과 교육방안

신재걸 교육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인재상과 교육 방안

- 신재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장) -

1.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의 필요성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시작한 돈 호세 마리아신부는 “협동조합운동은 ‘교육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동’이 아닌 ‘경제를 매개로 하는 교육운동’이며, 새 질서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학교이며 시설이다.”라고 했다. 협동조합 운영원리인 동시에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협동조합 원칙’은 역사적으로 시대와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원칙을 추가하기도 하고, 현실을 담기 어려운 원칙을 폐기하며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교육의 원칙’이다. 이는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운동에서 운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슬로건을 항상 이야기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가치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진영 내에서의 합의와 내용 공유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것 역시 현실이다.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는 현실의 시급한 교육을 수행함과 병행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인/활동가는 어떤 가치와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의 합의와 공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의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과정

- 사회적경제인의 6대 핵심가치와 6대 역량 정리 과정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가 2017년 8월부터 모임을 가지면서 모아진 현장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교육담당자들의 요구는 교육의 성공 사례, 강사 풀에 대한 기본 데이터 구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유, 교육담당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갈급함 등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긴 호흡이 아니라 현실에서 필요로 되는 요구가 대부분 이었고, 이런 모습은 교육이 하나의 부문(방법, 기법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이 모두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속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모아지기 시작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안적 성격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으며, 대안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적경제 인재상은 무엇이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런 인식의 전환 과정을 거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는 2018년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과정

1) 1차 설문조사 (2018년 6월~7월)

-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전략 수립의 전단계로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활동가 100인에게 묻다’ 설문 진행
- 대상은 사회적경제 활동경력 10년 이상 (현장/연구자/부문별)
- 1차 설문조사 내용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가치관, 자세 등)

핵심 가치	주요 내용 / 선정 이유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기술, 정보 등 전문성)

핵심 역량	주요 내용 / 선정 이유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와 기반은 무엇입니까?

- 총 70명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와 핵심역량 키워드 정리

①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 : 32개 키워드

: 연대, 민주성, 공동체, 사회 정의, 공공성, 생태주의, 호혜성, 협동, 혁신, 지역 중심, 균형감, 상생, 창의성, 공유, 공정성, 관계성, 자립, 협치, 사람 중심, 도전, 존중, 이타심, 도덕성, 사명, 책임감, 주체성, 신뢰, 미래 지향, 인내, 포용, 공감, 긍정성

②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 15개 키워드

: 의사소통, 기획력, 학습 능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민주적 리더십, 통찰력, 성찰, 갈등 관리, 촉진, 네트워킹, 정보 및 도구 활용, 분석력, 추진력, 의제 발굴, 협상

2) 2차 설문조사(2018년 8월~11월)

- 도출된 키워드 중 우선순위 선정
- 2차 설문조사 내용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 선택해주십시오)

- 총 520명 참여를 통해 6대 핵심가치, 6대 핵심역량 선정

① 핵심가치 : 협동, 공동체, 연대, 사람중심, 공공성, 민주성

② 핵심역량 : 의사소통,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네트워킹, 민주적 리더십, 기획·추진력, 갈등관리

◆ 2차 설문조사 결과

핵심가치	빈도	핵심역량	빈도
협동	204	의사소통	384
공동체	189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318
연대	183	네트워킹	257
사람중심	164	민주적 리더십	256
공공성	137	기획·추진력	214
민주성	132	갈등관리	210
상생	116	기획력 --> 추진력과 통합	200
호혜성	106	통찰력	138
혁신	104	의제 발굴	111
사회정의	102	성찰	93
책임감	101	학습능력	90
공감	84	정보 및 도구 활용	70
신뢰	84	협상	62
공정성	70	분석력	62
지역중심	67	촉진	57
주체성	63		
창의성	59		
관계성	59		
존중	52		
균형감	51		
자립	50		
미래지향	47		
사명	45		
협치	43		
도덕성	39		
공유	37		
포용	37		
긍정성	34		
도전	27		
생태주의	26		
이타심	22		
인내	10		
총합계	2544	총합계	2522

3. 사회적경제인의 6대 핵심가치와 6대 역량

1) 6대 핵심가치

협동

-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
경쟁과 배제가 아닌 호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천 -

사전적 의미로서의 '협동'은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공통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무엇인가 조직적인 방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활동을 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을 서로가 풀어내는 것, 다양향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방식, 서로 잘하는 것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 호혜성·신뢰 관계에 기반한 공동의 작업」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협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경제 활동의 기본철학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라 협동의 공간을 만들고 그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모아 공동체로 결합하려는 가치관이 사회적경제 활동가에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공동체성

-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 주체가 (개별화·파편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속력 -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인간의 공동체에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자들이 생각한 공동체성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가치이며,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화, 함께 결정, 함께 운영, 함께 책임, 주체적, 자발적 참여, 더불어 함께, 돌아봄.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활동 주체가 함께 하나갈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 특히 개별화·파편화 되지 않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결속성을 갖는 것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연대

- 공동의 의제를 이루기 위한 가치지향과 책임성의 연결 -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이며, 행동하여 함께 가는 것. 공동 의제화, 가치지향을 공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 연결성, 나누고 함께 하여 같은 곳으로 가는 것, 교육담당자들이 생각한 연대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연대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사회나 집단에서 보이는 통합, 또는 통합의 종류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많은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연대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적 통합력을 발휘하는 실천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중심

- 활동 목적과 목표에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활동이며, 조직의 성장보다는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먼저 생각하고, 성과나 돈이 아닌 함께 하는 사람의 행복을 중심에 두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은 인본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을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사람중심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인간다운 삶의 향한 경제이어야 하고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경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성장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활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

- 사적인 것, 공적인 것과 구별되며,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활동 -

공공성에 대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며,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과 보편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함께 참여야 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이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에서 절대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생각과 변화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공성은 개인의 이기적인 관점과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이루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민주성

-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것 -

민주성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성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의단계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담당자들은 민주성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합일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구성원들의 의사반영, 기다려주고, 인정, 존중하는 그러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성은 관계회복과 사람이 사람다움 생명 중심의 생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민주성에 대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활동은 결과중심이 아닌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공유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2) 6대 핵심역량

의사소통

-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 -

사회적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과정입니다.

의사결정자가 많은 구조이니 만큼 각각의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결정에 이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 공감하고, 경청하며, 질타가 섞이지 않은 질문과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인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 본질의 내용 따위를 분별하거나 해석하며 깨달아 알거나 잘 알아서 받아들임 -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철학과 역사, 이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갖추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요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에서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교육보다는 조직운영과 사업계획, 기업의 관리적 측면의 교육이 많아지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는 만큼 현장에서 기본 원칙에 대해 공감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많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 어떠한 일이나 문제점을 처리하는데 각 개인이나 기관 따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즐거운 날은 회의 하는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생겼는지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
는 활동가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매년 하고 있는 교육담당자 워크숍을 마칠 때면 자주 만나서 정보
도 교환하고 고민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업무들에 매몰되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제대
로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협동과 연대를 기본 원칙으로 전개되는 사회적경제 운동에서 필요한 기술과 정보
의 소재, 그것을 가진 사람과 조직을 알고, 연결하는 능력은 사회적경제 활동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기술 및 영향력 -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리더십 보다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오늘도 무수한 결정을 내려야한 하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민주적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들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에 세상을 보다 이롭게 하는 것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기획·추진력

- 기획력 :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 -
- 추진력 :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힘 -

사회적경제 운동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그것을 사업화하는 기획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독심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사회적경제 운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제거하거나 해결하고, 순기능을 유지하거나 자극하는 활동 -

다양한 주체와 문제가 산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없는 조직과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갈등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진화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술과 자질을 갖추는 것은 활동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과의 갈등, 주민과 주민사이의 갈등, 의사결정권자와의 갈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바꾸는 데에는 끈기와 집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갈등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이해하는 것부터 연습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갈등을 잘 관리하는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4. 사회적경제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육방안-제안

1) 사회적경제의 현실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나?

- ① 사회적경제의 현실은 모든 면에서 잘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도 확고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도 잘 챙기고, 조직도 잘 운영하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경제의 발전단계가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상을 상대적으로 더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리더/활동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사업적 역량과 아울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6대 가치와 6대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추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 ②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춘 인재는 존재하는 것인가?

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슈퍼맨-슈퍼우먼도 현재 사회적경제 인재에게 요구되는 모든 측면을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520명이 6대 가치와 6대 역량의 우선순위 중 첫번째로 각각 선정한 “협동”과 “의사소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동의 가치를 갖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인재”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경제인의 덕목으로 꼽은 것이라 생각된다.

인재상을 개인으로 보면 한 개인이 가치와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인재/활동가가 가치와 역량을 모두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인재상은 구성원들/활동가들이 함께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집단적 인재상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성원/활동가 개개인인 6대 가치와 6대 역량을 골고루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습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리더/활동가가 집단(조직)으로서 6대 가치와 6대 역량을 구현해 낸다면 조직 속의 개개인 역량이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총합으로서 조직의 힘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교육 시스템과 방향의 전환

- ① 개인의 맨파워 향상 중심의 교육에서 조직의 집단적 파워를 키우는 교육으로!!

- : 사회적경제는 개인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공동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을 가진다.
- : 때문에 사회적경제 교육 시스템은 개인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조직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② 임원 중심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체계를 구성원/조합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교육대상 구성 시 임원 중심에서 임원과 조합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사회적경제 리더 교육을 개설 할 시 현재의 리더와 앞으로 리더로 성장해 나가야 할 차기 리더 그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현실에서 임원 중심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 임원이 교육받은 내용을 자신의 조직에 돌아가 조합원/구성원과 함께 공유(전달 또는 내부교육)하는 것을 가능한한 추진해야한다.

3) 교육의 체계화

① 중간지원조직 교육체계

- : 사회적경제 리더 - 활동가 교육체계 구축
 - 6대 가치에 대한 자기정리(강의, 토론, 성찰) + 사업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
 - 조직운영과 사업운영 향상을 위한 6대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협동을 기반으로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한 교육 개발

② 당사자 조직 교육체계

- : 조합원(구성원) 교육체계 구축
 - 조합원 정체성과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교육/토론/공유
 - 협동조합 당면과제(사업, 조직)와 극복을 위한 공동 학습과 토론
- : 임원과 조합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체계/교육체계 구축 - 위원회 체계

③ 중간지원조직 교육체계와 당사자 조직 교육체계의 연동

- : 지역/업종 차원의 네트워킹 -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
- : 리더/활동가 교육체계의 성과를 당사자 조직 전체로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당사자 조직 조합원(구성원) 교육체계와 연동

발제문

2.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과제

장효안 팀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 및 과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효안

1. 교육 현황 취합 및 논의 과정

1) 광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협의회(7개 기관)

○ 구성: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통합지원기관)(이하, 충사넷),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광역자활,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각 기관 실무책임자

○ 5월 ~ 9월 총 4회 미팅 진행

- 기관별 교육 취합 · 조정 후 하반기 공동교육안 배포
- 강사풀 등 관련 자료 공유 및 취합
- 공동교육 평가지 확정 → 연말 교육담당자 활용

① 충남 내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공동 평가

② 향후 공동 교육 운영을 위한 시스템 논의

○ 향후 공동교육 기획으로 연계: 활동가 양성과정, zoom교육 등

○ 기타 현황은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관련 자료 참고

2. 대상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¹⁾

1) 도민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제공기관
사회문제 해결 참여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활동가(지역 디자이너)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도민 30명 - 사회문제정의 → 아이디어 시각화 및 시제품 ※ 현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연계 활동(7명) 	(광역) 사경센터 충사넷
사회적경제 진입 및 창업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설명회-먼데이(월 1회, 3h) - 제도설명회(1h), 팀별 진입 상담 	(광역) 충사넷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설명회-먼데이(월 1회, 3h) ■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5인 이상, 상시) - 설립교육, 운영교육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상시접수) ■ 입문교육(연4회, 7h): 마을기업 안내, 사업 계획서 작성 등(설립 전 필수) 	(광역) 충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All for Y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화 지원 - 워크숍 포함 5회 과정(3인 이상, 12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회적경제 그거 모유?</p> <p>- 소셜미션 수립 - 사업방향 수립</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회적경제 해유? 마유?</p> <p>- 비즈니스모델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회적경제 어서 오시유</p> <p>- 사업계획서 발표 - 우수팀 선정(상금)</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전선발 우수팀 특전 부여</p> </div> </div>	(광역) 충사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산물 제조가공 및 6차산업 과정 - 2년간 100명 수료, 4개소 창업 ▶ 충남도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과정(기본과정, 노노케어과정 등) - 2년간 240명 수료, 14개소 창업(4개소 사회적기업, 10개소 전환 중) 	청운대 충남도립대	

1) 자활관련 교육 제외. 자활 교육사업 대상이 자활 관련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교육적 결합이 제한적이므로 본 현황 파악에서는 제외.

2) 사회적경제 종사자(현장기업 + 중간지원조직)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제공기관
종사자 단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직원 대상 ‘미생’(1회, 8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이해, 직무교육, 네트워킹, 기타 기획 등 ■ 중간관리자 성장 up 교육(총3회, 각 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갈등관리 	중 현	(광역) 충사넷
기초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성! (함께 성장하는 컨설팅) (총6회, 각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교육: 공공구매, 마케팅, 사회적 재무제표 작성 등 - 피어멘토링: PR문서작성, 사업기획전략실습 등 ■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쇼핑) 활용 교육(총3회, 각 7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기획·촬영·편집·기술서작성 이론 + 실습 	현	(광역) 사경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실무: 답이 나오는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10개 법규 - 세무회계: 재무제표 이해, 재정지원사업 증빙과 절차 ■ 시군 연계 기초경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당진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소셜미션,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 사회적경제 사례 등 	현 중	(광역) 충사넷
사회적 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금융 현황, 자조금융, 크라우드펀딩, 지역화폐 등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요자(사회적가치) 관점 / 여신심사역 관점 	중 현	(광역) 사경센터
비대면 (zoom) 활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교육(3회 반복, 회당 3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oom활용 주최자, 관리자 역할 지원 ■ 단순 참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경센터, 마을지원기관 실무자 현장 파견 교육 	중 현	(광역) 사경센터 충사넷 마을기업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필수 교육(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문교육(연4회, 7h): 마을기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기초교육(연1회, 7h): 공동체, 조직관리 - 공통교육(연1회, 7h): 사례 중심 - 심화교육(연1회, 3h): 홍보, 회계 등 - (2년차)전문교육(연2회, 4h) ■ 기타 기획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마을기업 미션 점검, 상품 점검 등 	현	(광역) 충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 현장조직 교육, 워크숍 비용 지원 	현	(광역) 사경센터

3) 학교 청소년

구분	주요 내용	제공기관																
학교 교육 (정규교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도청 ×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초 강사 양성(20~45명) - 사회적경제교육(1,062명), 진로체험(487명) - 청소년캠프, 교재·키트제작 등 ■ 사회적경제교육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6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제공내용</th> <th>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초</td> <td>30학급</td> <td>2시간*5회</td> <td>2015~2020</td> </tr> <tr> <td>중</td> <td>30학급</td> <td>2시간*4회</td> <td>2016~2020</td> </tr> <tr> <td>고</td> <td>10학급</td> <td>2시간*3회</td> <td>2019~2020</td> </tr> </tbody> </table> ■ 진로체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29학급 / 2시간*3회 - 목공, 커피, 성악, 공예, 3D펜 등 	구분	대상	제공내용	시기	초	30학급	2시간*5회	2015~2020	중	30학급	2시간*4회	2016~2020	고	10학급	2시간*3회	2019~2020	(광역) 충남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분	대상	제공내용	시기															
초	30학급	2시간*5회	2015~2020															
중	30학급	2시간*4회	2016~2020															
고	10학급	2시간*3회	2019~2020															
학교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 28개) ■ 학교협동조합 상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 기획 지원 ■ 학교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변동 가능) 	(광역) 충사넷																

4) 기타

구분	주요 내용
대학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운대 사회적기업학과 ■ 충남도립대 사회적경제·IT학과(계약학과) ■ 백석대 혁신융합학부 소셜비즈니스 융합 전공
공무원 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회 각 4시간 (공무원 교육 이수 점수 연계)
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취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팀 대상, 강사비, 물품구입비 등 제공

3. 2020년 교육 현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제와 의견

1.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조정 · 협업 과정 필요

- 대상별 · 수준별 필요 교육 협의 및 제공 방안 논의 등
 - ※ 청운대, 충남도립대, 나사렛대와 현재 협업방안 논의 중
- 도민 · 종사자 대상 사회적가치 관점 교육, 초기 진입 교육과정 강화, (시군)종사자 역량강화 등 우선 고려 필요
 - ※ 현장기업 사회적가치 관점 반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Let 's go green 참여기업 대상 SVI교육, 충남사회적경제기금 평가지표 교육 등

2. 광역 · 시군 협력적 교육 제공 방안 모색

- 21'부터 내 7개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 본격화
 -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보령)
- 광역 · 시군 역할 분담 필요
 - 시군: 현장 직접지원 관련 교육 제공(진입안내, 기초 경영)
 - 광역: 전문가 양성 · 연계(시군 종사자 역량강화 등)
 - ※ 현재 7개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매월 중간지원조직 연석회의 운영

3. 현장 욕구 기반: 상시성 · 활용용이성

- 현장 욕구 높은 교육에 대한 상시적 제공 고려
 - (ex)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총사협)
- 활용용이성: ex)클라우드펀딩 교육 → 클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

4. 비종사자 사회적경제 인식 강화

- 학습동아리, 진입 전 사회문제 해결 기회 제공
- 학교 교육: 정규 교육과정 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토론문

1. 지원조직 관점에서 인재양성 방안

최인묵 실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20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토론문

- 중간지원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방안

□ 토론자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업지원실 최인욱 실장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의미

- ‘중간지원조직’의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남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행정사이를 잇는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현장의 애로점과 문제점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상당수의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면서 행정중심의 운영이 필수요소가 되고 이로 인해 행정의 보조수단 또는 행정의 하부조직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빛과 그늘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한사람의 종사자로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요소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해본다

· 방향성 수립과 활동의식 고취

-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하며 여러경로를 통해 만나는 활동가들을 보았을 때 상당수의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중간지원조직의 그늘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행정처리에 하기에 급급해 실제 필요요소에 대해 망각한 채 업무를 수행하거나 본인이 마치 수혜를 제공하고 그것을 판별하는 제공자의 입장으로 활동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인식되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았을 때는 개인의 방향성 부족, 역량미달, 활동가로서의 자질부족 등 대체로 개인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단순히 방향성을 갖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체계를 우리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또한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 전문분야 양성

- 현재 사회적경제의 영역과 스펙트럼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창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활동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해선 다소 미치지 못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 실례로 도시재생 분야가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는 활동가의 기근을 보이고 있는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 수년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의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소위 “받을 준비”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활동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운동의 관점에서만 보는 활동가의 양성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읽고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와 고민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 민-민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많은 광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다수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 역시 광역단위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 두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 그러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업무를 모르거나 또는 단순히 공유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실제 유사한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각기 수행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 이는 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피로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행정소요로도 이어지게 되며 종국에는 네트워크 단절로도 이어질수 있는 우려가 있다
- 네트워크는 활동성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요소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협치를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
- 이를 위해선 실질적 협치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활동가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서로간의 동료의식을 갖고 함께 성장할수 있는 계기와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몇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양성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을 남기는것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우리 안의 사람을 떠나보내며 또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 될것이라는점을 명심해야 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이점을 함께 고민해야 할것이다

토론문

2. 농촌지역 관점에서 인재양성 방안

정민철 상임이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방안

-농촌에서 바라본 -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정민철

1. 자주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있다.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논쟁은 하나로 귀결된다. 안심하고 활동할 괜찮은 사회적 일자리(특히, 중간지원조직)가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한 것일까? 결론 역시 항상 동일하다. 둘 다 부족하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답 역시 동일하다.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이 달라진다. 일자리는 조례와 조직 형태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열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기 반성으로 마무리된다.
2.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상생**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법을 익힌다”이다. 중학교 교육목표에는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갖춘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목표에는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기른다”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당혹스러웠던 경험은 두 번 있다. 2000년대 중반 사회적기업이 막 활성화가 되던 시기였다.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을 해 본 적도 없고 사회적경제는 잘 모른다고 거절하다가. 국내 사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그 시기 마을의 빵집과 목공실, 헌책방 등을 시작하고 운영되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사회적기업을 생각해 본적 없는데 왜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리둥절했다. 두 번째는 2010년대 중반이었다. 농장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사회적농업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회적농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왜 우리는 사회적농업이라 규정당할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을의 누군가가 향후 나타날 이슈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 실행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지만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4. 한국에는 협동조합의 전통이 거의 없다. 자마니 교수가 얘기는 에밀리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것 아닌가? 짧은 시간에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주 전에도 캐나다의 학자와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다녀갔다. 매년 여름에 2주 동안의 협동조합 코스를 개설하는데 이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온다. 실제로 밴쿠버 등지에서는 여기서 배운 것이 현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책과 논문으로 알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체득하는 것이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토론하면서 알아 나가야 한다.” -협동을 통한 평등한 사회, 꿈 같은 세상은 가능하다.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11일
5.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글이나 말을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여 이해시킬 수 있을까? 경쟁을 통해 현재 자리 온 사람이 갑작스럽게 협동을 실감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 속에서만 평생을 살아 온 사람에게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 시킬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 활동가에게 필요한 그 많은 좋은 단어들이 느끼고 체득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 온

과정에서 있었을까? 요즘 대학에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 이전에 가족, 학교, 직장을 제외한 일상 생활 속에 “사회”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 최소한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속에 나오던 쌍문동 골목길 지역사회 정도라도 말이다.

6. 저밀도의 사회에서는 소위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사회의 공간 즉, 면적이 넓다면 “공공”적 활동조차 여의치 않는다. 그럼에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준이 삶의 질을 보장 받을 방법이 없을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좁은 면적내로 인구를 이전시켜 밀집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작동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홍성군 장곡면의 인구는 3,000명 정도이고 서울시 은평구의 인구는 대략 50만명이다. 면적은 장곡면이 은평구의 2배이다. 동일한 경제 체계가 작동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나?
7. 홍순명선생님은 “평민마을학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조육(助育)’이면서, 다양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이웃공동체의 관계와 테두리를 깊고 건강하게 넓혀가는 ‘공육(共育)’입니다.

평생 배우고 일하며 협력하는 마을,
돈과 경쟁이 아닌 흠과 협동의 가치에 한걸음 씩 다가가는 마을,
자신이 살아가는 땅에 발을 붙이고 아래로부터 그러한 삶을 이뤄가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촌위교以村爲校(마을이 학교가 된다)의 정신을 이어서 온 마을로 교육의 마당을 열어갑니다. 일상의 일과 생활에 필요한 앎을 이루기 위해 종교·농업·사상·역사·생태·복지·문화·마을 등을 함께 공부합니다.“